공부 기술자 아닌 진짜 영재 뽑는다

광주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2011학년도부터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 중 상위 1%만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이 '입학사정관제'로 바뀌게 된다. 또 올 연말부터 선발되는 201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중 일부도 무시험 학교장 추천으로 뽑는다.

이는 기존 시험 선발 방식이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실시되는 2010학년도 초·중·고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인원은 2009학년도보다 640명이 늘어난 2천609명이다. 24개 초·중·고교 53개 영재학급에서 1천468명을 선발하고, 동·서부 교육청에서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740명을 뽑는다.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 1~3학년생 160명, IT영재교육원은 초4~고1 학년생 1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 11월 개원 예정인 예술영재교육원에선 음악, 미술에 특기가 있는 학생 40명을 선발한다.

201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가장 특징은 교육정보원 산하 IT영재교육원의 선발 인원 중 30%정도를 학교장 추천제로 뽑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원은 시험과 심사 등을 곁들인 기존 선발 유형과 동일하다.

2011학년도부터는 영재교육대상자의 30% 범위내에서 입학사정관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 의해 선발된다. 이후 3년간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100% 입학사정관제 선발로 전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각 학교당 1~2명의 교사를 선발, 입학사정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과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6개월에서 1년간 집중 관찰하고, 분석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방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존 시험유형을 분석해 준비하는 '맞춤형' 사교육을 받게하는 폐단이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공부를 잘하는 기술을 가진 학생보다는 진짜 영재성이 숨어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자치운영협의회 소속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등 300여명이 13일 조선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민주적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주적 정이사 선임하라"

조선대 자치협, 범조선인 결의대회

조선대학교 자치운영협의회(이하 자치협)는 13일 오후 서석홀 대강당에서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인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적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조범준 자치협 대표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지 2년이 돼 가지만 한시적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됐고, 교과부와 사학분쟁위가 학교 분규의 원인을 제공한 비리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학교 구성원의 대학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민주적 정이사를 쟁취할 것이며, 정상화를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협은 이날 ▲교과부는 조선대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부정비리를 저질러 학교 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현재도 끊임없이 학내 분열행위를 일삼는 비리 집단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부정비리 집단이 완전히 배제된 정이사 선임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제고사 보고 있어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 첫날인 13일 광주 문흥초교 6학년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시험에 참가한 학생은 광주가 298개교 5만7천여명, 전남은 838개교 7만5천여명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초·중·고 일제고사…광주·전남 20명은 결시, 체험학습

전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일제히 학업성취도평가가 치러진 13일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야외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무등산 일대에서 학생 8명과 학부모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문화답사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체험학습 참가자들은 이날 광주 동구 무등산 의재문화 유적지를 탐방한 뒤 시험 둘째날인 14일에는 대인시장 예술프로젝트 공간 투어 등을 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도 보성과 여수, 순천, 고흥, 담양 등 5개 지역 6개교에서 12명이 고흥으로 농촌문화체험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5개교에서 8명, 고등학생은 1개교에서 4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교사는 없으며,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12명은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급식비 못내는 학생 1,370명

광주·전남 신빈곤층 증가…연체액 2억 넘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학교급식비 연체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904명, 전남 466명 등 1천370명에 달했다.

연체액은 광주가 1억3천만원, 전남은 8천300만원 등 2억1천300만원이다. 특히 전남은 2007년 158명(2천400만원)에서 308명이 늘어 2.9배 급증했고, 광주도 751명(1억2천200만원)에서 153명(20.4%)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전체 학생의 10%가량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급식비 연체 학생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신 빈곤 가정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학교 급식비 연체 학생이 2006년 1만6천953명(19억2천500만원)에서 2007년 2만4천145명(29억1천600만원), 2008년 3만1천908명(39억2천80만원)으로 증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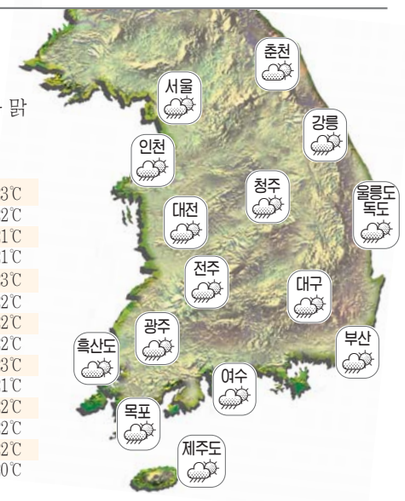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7분 해짐 17시 59분 달뜸 02시 00분 달짐 15시 28분

가을밤 편지 써봐요

오전까지 비가 온 뒤 점차 맑아지겠다.

광 주	비온뒤 갬	12/23℃
목 포	비온뒤 갬	13/22℃
여 수	비온뒤 갬	15/21℃
완 도	비온뒤 갬	14/21℃
구 례	비온뒤 갬	11/23℃
해 남	비온뒤 갬	13/22℃
장 흥	비온뒤 갬	13/22℃
고 흥	비온뒤 갬	13/22℃
순 천	비온뒤 갬	12/23℃
영 광	비온뒤 갬	11/21℃
진 도	비온뒤 갬	14/22℃
전 주	비온뒤 갬	11/22℃
남 원	비온뒤 갬	8/22℃
흑산도	흐린뒤 맑음	16/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서~북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10:46 23:26	04:05 16:14
여수	06:04 18:27	11:59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 씨						
최저/최고	10/23	12/22	13/20	11/22	12/22	11/19

공군 '우주조종사' 후보 선발

내년부터 위관급 대상

공군이 내년부터 '우주조종사' 후보를 주기적으로 선발한다.

우주조종사는 편대장 자격을 보유한 위관급 전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I등급 기준을 적용해 정밀 신체검사를 한 뒤 이를 통과한 장교에 대해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우주조종사 후보로 선발되면 공군본부의 우주관련 전문 직위에 우선 보임되고 우주관련 국내외 위탁교육뿐 아니라 외국견학 기회도 제공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작년에 조종, 항공통제, 정보통신 등 8개 병과에서 27명의 우주전문인력을 선발했다. /연합뉴스

'여성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 급증

2분기 754건→3분기 1,082건

광주시여성발전센터(소장 최연주)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올 3·4분기 이용실적 분석 결과 2·4분기에 비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여성발전센터에 따르면 3·4분기 상담 건수는 모두 1천946건으로 2·4분기 1천 610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기혼 등 '가정 분야 상담'은 2·4분기 754건에서 1천 82건으로 44%나 늘어났으며 상담 인원은 1천 1천46명에서 1천118명으로 7% 증가했다.

반면 성폭력·성매매·성상담 등 '성폭력 분야 상담'은 182건으로 지난 분기 201건보다 10%가 감소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